

7. 다음 두 그림을 함께 보고 연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우에 따라 동일한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②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손길이 필요하다.
- ③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것을 망각하면 결국 공멸하게 된다.
- ④ 이해가 극단적으로 충돌할 때일수록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 ⑤ 현대인은 나눔의 미덕을 잃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

8. 다음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할 때,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 과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과학성' 조사 및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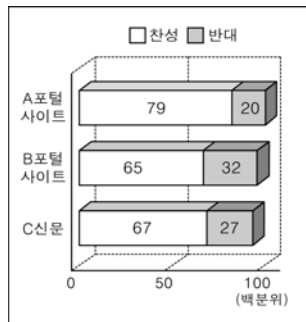
< 조건 >

1. 발표 대상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형식 : 보고서 형식을 취하되 발표용으로 구성할 것
- 체계적인 목차 설정에 유의
3. 내용 : 훈민정음 자모 체계의 과학적 원리 조사
- '상형'과 '가획' 등의 원리(항목별 구성)
4. 자료 : 문헌 자료, 인터넷 자료
- 다른 표음 문자(로마자)의 특성 조사 포함
- 시각 자료를 적절히 첨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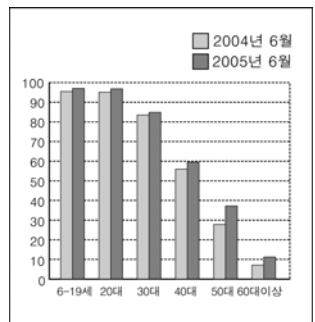
- ① 훈민정음과 로마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우리 문자가 지닌 과학적 우수성을 찾아낸다.
- ② 훈민정음의 체계를 설명할 때에는 발음 기관을 그린 자료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 ③ 친구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획', '상형'과 같은 용어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한다.
- ④ '과학성'에 글의 초점이 있으므로 자모 체계와 발음 기관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과학적 원리들을 조사한다.
- ⑤ 보고서의 주요 목차는 'I.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II. 훈민정음의 반포 경위, III. 훈민정음의 명칭 변화 과정' 순으로 정리한다.

9.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글을 쓰고자 <보기>와 같이 글감을 수집하였다. 찬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1점]

- < 보 기 >
- ㄱ. 헌법 제17조와 제21조에는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ㄴ. 실명 확인이 필수적이었던 과거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은 존재하고 있었다.
 - ㄷ.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에 견디다 못한 한 여고생이 급기야 가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 ㄹ. ○○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게시판에 글을 쓰게 한 결과 인신공격성 게시물이 감소했다.



ㄱ.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ㄴ.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정보통신부 조사)

- ① ㄱ, ㄷ, ㄴ
- ② ㄴ, ㄹ, ㄷ
- ③ ㄷ, ㄹ, ㄱ
- ④ ㄱ, ㄴ, ㄹ, ㄱ
- ⑤ ㄱ, ㄷ, ㄹ, ㄴ

10. 다음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해 자기 평가표에 따라 표시하여 보았다. 표시가 잘못된 것은?

< 보 기 >

대중가요의 성공과 실패

대중가요를 보면, 노랫말과 곡조가 새로운 가요들이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어제의 인기 가요가 오늘엔 흘러간 노래로 변하고, 내일이면 또다시 새로운 인기 가요가 탄생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들은 애창곡이 되겠다는 의지를 품고 비좁은 연습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고(産苦) 끝에 나온 수많은 대중가요 가운데 어떤 노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자고 나면 스타의 반열에 오른다. 하루아침에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부침(浮沈)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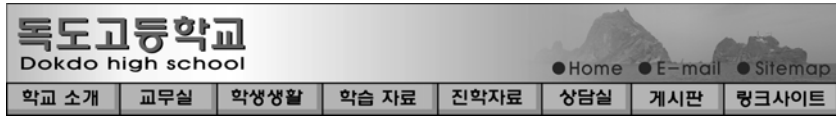
그러나 가요계의 판도를 살펴보면, 한번 스타의 반열에 올라섰다 하여 자제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스타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	그렇다	아니다
①	제목과 글의 내용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
②	문단은 적절히 구별되어 있는가?	✓	
③	내용의 비약은 있는가?		✓
④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적절한가?	✓	
⑤	어휘의 선택은 적절한가?		✓

11.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읽고 그에 동조하는 댓글을 <조건>에 맞게 쓰고자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조건 >

- 별명이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11 ◆ 친구에게 별명을 붙여 줍시다! 😊 감쪽이

별명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관찰해야만 지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의 특징을 잘 반영한 별명은 학교 생활의 재미와 함께 친구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여러분, 별명이 없는 친구에게 별명을 붙여 줍시다!

Re: ◆ 영원한 너구리로 남을래~ 😊 너구리

① 안녕하세요? 저는 너구리예요. 재미있는 별명이죠 저는 이 별명이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너구리라고 불러 주세요. 하하~

Re: ◆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울 😊 흑곰

② 별명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불러 주는 별명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별명이 없는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 줍시다^^!

Re: ◆ '~애늬은이' 이젠 싫거든~ 😊 애늬은이

③ 별명을 부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재미 삼아 부른다고는 하지만 당사자가 싫어하면 삼가야겠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입니다.

Re: ◆ 별명 좀 만들어 줘요~ 😊 이소망

④ 친구 간에 별명을 불러 주는 것도 친근감의 표시인 것 같은데 저는 별명이 없어 왠지 슬퍼지네요. 저에게 꼭 맞는 별명을 붙여 줘요~.

Re: ◆ '~별명이 꼭 있어야 한다? No! 😊 박미래

⑤ 저도 별명이 없습니다. 친구와 '나'를 이어주는 진정한 끈은 마음입니다. 별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12.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기 소개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 적잖게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급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그런 성격을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급회장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덕목은 자신감이라고 ㉡ 질책해 주셨습니다. 다른 학생을 이끌어야 할 ㉢ 임원으로써 가져야 할 자신감은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행동이 친구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욱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좋아지고 공부에도 재미를 ㉤ 부쳐 가고 있습니다.

- ① ㉠은 '적잖다'가 기본형이므로 '적잖게'로 바꿔야겠어.
- ② ㉡은 상황에 맞지 않으므로 '지시해'로 고쳐야겠어.
- ③ ㉢은 '자격'을 나타내야 하므로 '임원으로서'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므로 '매우 중요하다'로 고쳐야겠어.
- ⑤ ㉤은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붙여'로 바꿔야겠어.

13. <보기>에서 설명한 '동작상'의 예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1점]

< 보기 >

우리말의 시간 표현 중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완결된 것인지 등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을 '동작상'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진행상, 완료상 등이 있다.

진행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완료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끝난 모습

(예)

- 빨래가 다 ㉠ 말라 간다.
- 바람이 세게 ㉡ 불고 있다.
- 영화는 밥을 다 ㉢ 먹어 버렸다.

	진행상	완료상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4. <보기>의 규정으로 볼 때, 밑줄 친 어구 중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보기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 ① 그가 떠난 지가 오래 되었다.
- ② 학교는 마을에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 ③ 나는 친구와 10월 31일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 ④ 아버지께서 생일 선물로 옷 한 벌을 사 주셨다.
- ⑤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과, 배, 바나나 등을 사 오셨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주(晋州) 장터 생어물(魚物)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晋州南江)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나)

어머니의 **고추밭**에 나가면
연한 손에 **매운 물** 든다 저리 가 있거라.
나는 **비탈진 황토밭** 근방에서
멤멤 **고추잡자리**였다.
어머니 어깨 위에 내리는
㉡ 글썽거리는 햇살이었다.
아들 넷만 나란히 보기 좋게 키워내셨으니
깃무른 벌레 먹은 구멍 뚫린 고추 보고
누가 도현네 올 고추 농사 잘 안 되었네요 해도
가을에 가 봐야 알지요 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 안도현, 『고추밭』 -

(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감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감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색깔이 다 모여 있는 **물감상자**를 앞에 놓고 진달래꽃빛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달래꽃물을, 연초록 잎새들처럼 가슴에 싱그러움 그리움을 담고 싶은 이들에게는 초록꽃물을,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에게는 쪽두리 모양의 노란 국화꽃물을 꿈을 나눠주듯이 물감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눈빛처럼 흰 맑고 고운 마음씨도 곁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해종일 물감장사를 하다보면 콧물마저도 무지개빛이 되는 많은 날들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동저고리 입히는 마음으로 **나**를 키우기 위해 물감장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 지상에 아니 계십니다. 물감상자 속의 물감들이 놓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나에게 물감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색깔들만 가슴에 물들이라고 물감상자 하나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 강우식, 『어머니의 물감상자』 -

1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삶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좌절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 ④ 어린 시절의 추억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회고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듯이 노래하고 있다.

1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 ㉡ 모두에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다.
- ② ㉠, ㉡ 모두 순수함을 간직한 시적 화자를 가리킨다.
- ③ ㉠, ㉡ 모두 화자에게 과거를 떠올려 주는 매체이다.
- ④ ㉠은 시상을 확산시키고, ㉡은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⑤ ㉠은 소망의 실현을 의미하고, ㉡은 소망의 상실을 의미한다.

17. (가)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정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추위와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한(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하여 유년기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8. (나)의 시어 이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	이해 과정
고추밭	고추밭 → 여름 → 따가운 별
매운 물	농사짓는 고통
비탈진 황토밭	일하기 힘든 환경
고추 잡자리	고추밭을 맴도는 모습 - '나'와 동일시
어른	'가을'과 의미 상통 - 고향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

19. (다)를 보면서 <보기>의 내용이 연상되었다고 할 때, 두 작품을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열세 살짜리 소년 '훈필'의 **고향 마을**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깡통 대신 **꽃망태기**를 짊어진 동냥치가 나타난다. 봄에 왔다가 가을에 가 버리는, 등쪽에 지고 다니는 망태기엔 들꽃이 가득한 동냥치를, **마을 사람들은 '꽃치'**라고 불렀다. 꽃치는 밥을 얻어먹으면 그 보답으로 일을 해 주어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는 가을이 되면 말없이 사라져 마을 사람들을 아쉽게 했다. 이런 그는 훈필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훈필이 꿈을 찾아 가출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길에서 문득 마주친 꽃치는 이렇게 말한다. "꽃이 아름답지 않냐!" 꽃치에게서 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다. 훈필은 그 말에서 희망이 담긴 꽃냄새를 맡는다. 훈필이 그를 잊지 못하는 것도 '희망'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 박상률, 『봄바람』의 내용 중에서 -

(다) <보기>

- ① 물감상자 = 꽃망태기 → 희망을 담고 있는 도구임
- ② 어머니 = 꽃치 → 넉넉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
- ③ 시장 = 고향 마을 → 애환이 서려 있는 삶의 현장임
- ④ 나 = 훈필 →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함
- ⑤ 처녀들 = 마을 사람들 →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있음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를 아끼는 사람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말의 질적 저하 현상에 걱정스런 ㉠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중가요의 노랫말과 인터넷 언어 등을 통한 우리말 경시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로 두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선배들은 정말 주옥같은 가사로 노래를 불렀다. “조각배에 사랑 싹고 행복 찾아 가지요.”라든가, “바람 불고 비오는 어두운 밤길에도 홀로 가는 이 가슴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등에서처럼 주로 경어체를 사용했고 시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문장을 썼다. 한 세대 전에는 “모닥불 피워 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라고 노래하기도 했고,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를 읊조리기도 했다. 이런 노랫말에는 시의 정신이 살아 있었기에 가수는 바로 음유(吟遊)시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들은 대개 반말조의 노랫말을 사용하고 있다. 노래 가사에는 더 이상 시적 정취가 들어 있지 않다. 모든 욕망은 즉각적으로 충족되고, 원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 주변 상황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나’의 감정만이 중요할 뿐이다. 타인의 시선과 남에 대한 배려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곳에는 간절한 희망(希願)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다. 아버지께 부탁드리거나 선생님께 말씀드리고서 일주일쯤 기다리는 여유를 잃어 버렸다. 방금 말했으면, 그것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상업주의가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인터넷에는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판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활성화된 나라여서 그런지 가상공간의 언어 오염도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다. ‘하세요’, ‘하십니까’ 등의 바르고 단정한 말투가 사라지고, ‘하세여’, ‘하셈’, 심지어 ‘하삼’ 같은 이상한 말투가 유행하고 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풍조에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슬기롭게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우리말은 많이 다치고 상처 받으며 곁길로 새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말의 질적 저하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제는 대중매체가 오히려 우리말의 질적 저하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같은 데서 나오는 요리 관련 기사나 프로그램을 보면, 흔히 ‘늪은 호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누렇게 익어서 껍이 굳고 씨가 잘 여문 호박은 ‘늪은 호박’이 아니라 ‘청둥호박’이다. 곱은 누렇게 익었으나 씨가 여물지 않은 호박은 ‘굴통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둥호박을 쪄개 보았더니 굴통이었다.’와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러나 지금처럼 ‘늪은 호박’이란 말이 대중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는 현실에서, 이 말을 들려 주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우리말을 잘 가르치려는 노력도, 배우려는 노력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렇게 된 데는 대중매체의 책임이 크다. 대중매체의 잘못된 표현 하나가 순식간에 언중의 언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대중매체에서 쓰는 경박하고 저속한 표현, 어법에 어긋난 표현, 외국어의 남용 등은 국어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대중매체의 언어를 제대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0. 위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반응은? [1점]

- ① 매체 언어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군.
- ② 한두 세대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를 골라 들어야겠군.
- ③ 우리말의 질적 저하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군.
- ④ 국적 불명의 언어가 판치는 인터넷 공간을 정화해야겠군.
- ⑤ 대중매체의 언어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겠군.

21. ㉠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꽃잎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 빗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 어디로 데려갈까 /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 무엇이 이 숲 속에서 ~ 이들을 데려갈까
- ② 난 한 그루 나무 넓은 하늘을 늘 꿈꾸지 / 두 팔을 벌려 내 품에 가득가득 안아 보고파 / 난 푸른 한 그루 나무 한결같은 마음 하나로 / 나를 길러낸 이 곳 이 땅에서 / 나만큼의 그만큼의 그늘을 드리네
- ③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어 /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대 위해 비가 되겠어 /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 ④ 그런 충고는 집어 쳐 거짓 치장은 싫어 / 내가 말하는 건 그게 내 마음일 뿐 / 너는 나를 욕하지 아직 어린애라고 / 그게 어른이면 나는 아이가 될래 그 편이 나아 / 이 답답한 세상에 웃음만을 짓기엔 지쳤어 화가 나
- 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 바람 부는 벌판에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 아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22. ㉢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진술은? [1점]

- ①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언어는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 ③ 언어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④ 언어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
- ⑤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3. <보기>는 ㉠와 관련한 사전 풀이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눈길¹ [-꺠] ㉠ ㉡ 눈이 가는 곳. 또는 눈으로 보는 방향. 시선(視線). ㉢ ~이 마주치다./~이 쏠리다./~을 돌리다. ㉣ 주의나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소외된 사람들에게 ~을 주다./사회의 따스한 ~이 청소년의 비행을 막는다.

눈을 모으다 【관용구】 여러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다. 못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다. ㉥ 그녀는 빼어난 미모로 여러 남자들의 ~.

눈길² [눈:꺠] ㉦ 눈에 덮인 길. 눈이 내리고 있는 길. ㉧ ~에 난 발자국./발목까지 빠져드는 ~을 걷다.

- ① ㉠은 눈길¹의 ㉣에 해당한다.
- ② 눈길¹과 눈길²는 서로 다른 단어이다.
- ③ 눈길²의 첫 음절 ‘눈’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 ④ 눈길¹은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이고 눈길²는 어근끼리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⑤ “나는 아버지의 따가운 눈길을 피했다.”라고 할 때의 ‘눈길’은 눈길¹의 ㉡의 뜻이다.

【24-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달콤한 사탕을 먹던 입으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심심하고 밍밍한 것이 영 맛이 없다. 강하게 단맛을 들여 놓은 입에 사과가 제 맛이 날 리가 없다. 사람의 미각은 달거나 맵고 짠 양념이 너무 강하면 음식의 제 맛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향신료의 강한 맛이 우리의 혀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진한 양념으로 둔갑해진 입맛으로는 음식의 감칠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인생의 맛도 행복감(幸福感)도 이와 같다.

오늘날의 야단스러운 산업 문명 속에서 살다보면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너무 강렬하고 현란스럽고, 귀에 들리는 음향도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음이라서, 그 속에서 농도 짙은 쾌감만 좇다 보면 섬세한 감각은 모두 잃고 만다. ㉠ 항생제도 그 단위가 높고 강력한 것을 쓰다보면 그보다 낮은 것은 전혀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단위를 높여가지 않으면 효력을 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강력한 쾌락에 탐닉하게 된 현대인들은 즐거움도 행복도 좀처럼 느낄 수 없는 돌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옛 시인들은 매일같이 뜨고 지는 달을 바라보고도 그 슬한 시상(詩想)을 얻을 수 있었고, 예사로이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서 대자연의 리듬을 간취(看取)하였으며, 어디서나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더 위대한 자연의 음악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섬세한 귀를 가지고 있었다. 오늘의 우리들은 그래서 옛 사람보다 불행하다.

알베르 카뮈는 ‘인생은 부조리(不條理)’라고 전제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러나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없다. 살면서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부조리가 인생을 지루하고 따분한 권태의 연속으로 만드는 것이다. 산다는 것이 그저 시시하고 따분할 때가 정말로 많다.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 그리고 수·목·금

·토·일요일이 오고 다음에 또다시 월요일이 온다. 인생의 부조리에 대해서 카뮈는 ‘인생은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표현했다. 무의미한 요일의 명칭들이 돌고 도는 것과 같이 이처럼 의미 없는 지루한 삶의 쳇바퀴가 돌고 돈다. 무언가 신나는 일이 없을까, 화끈하게 재미가 쏠아지는 일이 없을까. 의미 있는 삶을 잃은 현대인들은 이 끈끈한 권태감을 잊게 해 줄 자극적인 흥분을 찾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보다 강력하고 짜릿한 욕구에 목마른 자기와 진정한 자기와의 격차가 커진다. 그 격차가 더욱 심해지면 진정한 자기는 따분하고 너절한 것 같고 차라리 버리고 싶은 귀찮은 존재가 된다. 신기루 같이 자기를 기만해서 만든 과대 망상의 산물이 나 자신 속에서 진정한 나를 억압하고 나 자신을 잃은 상태에까지 몰아넣는다. 사이버 신(神)을 모시다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광적인 유사 종교의 맹신자처럼 ㉢ 현대인은 거짓 욕구의 과잉 개발에 시달리며 거짓된 자기를 좇다가 진정한 자기를 살지 못하는 비극의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찾아 헤매는 더욱 벅찬 인생 수양이 현대인에게는 더욱 절실해진다.

나는 그림은 잘 모른다. 산수화나 수묵화 같은 동양화의 감식안을 갖추지 못한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처지다. 그러나 어느 전시회에서 검은색 하나만을 써서 그린 ㉣ 수묵화 앞에 섰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현란한 컬러텔레비전으로 오염된 나의 시각에 아직 마비되지 않은 신경 오라기가 몇 줄 남아 있었을까. 검정색 하나의 그 그림에는 기운이 넘치고 5색 7색의 현란한 채색화를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다. 매화도 먹으로 그리고, 일필휘지로 힘차게 뺀 난초 잎도 모두 검은색으로써 그 농담(濃淡)의 기미와 상징 기호 같은 준법(皴法)*으로 유감 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밖으로 나대는 외화(外華)에 인색해서인지, 그런 이의 가슴속 깊은 곳의 여운이 은근하게 울아온다. 자극성 있는 흥분 같은 야비한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법열(法悅)**을 일으키는 귀한 감동이 있다.

오래 잊었던 잔잔한 호수의 거울같이 평정(平靜)한 행복감이 수묵화에서 나에게 다가온다. 병든 현대인에게는 고요한 마음으로 참다운 자기를 되찾게 해 주는 수묵화의 행복론이 인생의 내면을 살찌게 해 주는 보약이 되지 않을까.

- 신일철, 『수묵화의 행복론』 -

* 준법(皴法): 동양화에서, 산악·암석 따위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는 기법.

** 법열(法悅): 참된 이치를 깨달았을 때 느끼는 황홀한 기쁨.

(나)

㉠ 보리밥 꽃나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꺠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라

잔 들고 혼자 안자 ㉡ 면 뽕을 바라보니
 그리던 남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 [A]
 말쑤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내 성(性)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시어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 윤선도, 『만흥(漫興)』 -

24. (가)와 (나)의 글쓴이에게서 공통적으로 엿볼 수 있는 생각은?

- ① 쾌락을 좇으면 좇을수록 행복해지기 어렵다.
- ②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 ③ 화려하지 않게 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 ④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한다.
- ⑤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성찰하는 일은 중요하다.

25. (가)를 읽고 글쓴이가 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바를 <보기>와 같이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3점]

< 보 기 >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룬 수필 쓰기	
↓	
어떻게 전개할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ㄱ 사탕을 먹다가 사과를 먹었던 경험을 소개하며 앞으로 다룬 화제를 제시하자.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거야.
ㄴ 현대인들과 옛 사람들의 생활 양상을 제시하며 문제 상황을 부각하자.	현대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거야.
ㄷ 소설가 카뮈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을 진단하자.	독자들의 신뢰감을 강화할 수 있을 거야.
ㄹ 상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하여 문제 상황을 심화하자.	글이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야.
ㅁ 실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찾자.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6. ㉠의 구체적 사례로 적절한 내용은?

- ① 명진이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밤을 새워 가며 공부한 결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취감을 느꼈다.
- ② 여진이는 큰 포부를 가지라는 국어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세계를 품을 꿈을 갖게 되었다.
- ③ 성은이는 음악을 즐기려고 오디오 기기를 구입하였지만 다른 기기가 새로 나오면 그것으로 바꾸지 못해 안달했다.
- ④ 병철이는 평평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복권에 집착했으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는 못했다.
- ⑤ 철수는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에 다녔지만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7.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에게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 의(義) 아니면 좇지 말라
우리는 천성(天性)을 지키어 삼긴 대로 하리라 - 변계량
- ②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人傑)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아니 오노매라 - 황진이
- ③ 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태(態) 없는 유수(流水)로다
값없는 청풍(淸風)이요 임자 없는 명월(明月)이로다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分別) 없이 늙으리라 - 성혼
- ④ 삼동(三冬)에 배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햇별도 췌 적이 없건마는
서산(西山)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조식
- ⑤ 비 오는데 들에 가랴 사립 단고 소 먹여라
장마가 매양이라 쟁기 연장 다스려라
쉬다가 개는 날 보아 사래 긴 밭 갈아라 - 윤선도

28.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였다.
-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였다.
- ③ 권유하는 말투를 구사하였다.
- ④ 대조적인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 ⑤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였다.

29.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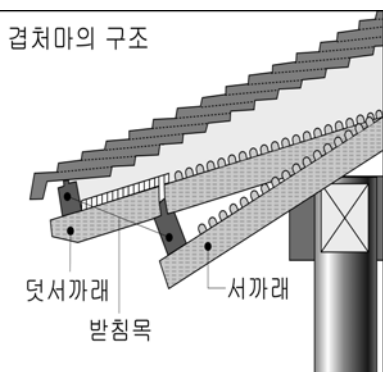
< 보 기 >

공자는 제자인 안회가 극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도(道)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어질다고 칭찬한 바 있다. 이런 공자를 본받아 우리 옛 선비들도 청빈한 삶을 예찬하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렸다. 기름진 음식이 없고 화려한 옷이 없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었던 것은 값없이 즐길 수 있는 영원한 완상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전통 건축에서 날아갈 듯한 기와지붕 처마선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비밀은 서까래를 이중으로 처리한 겹처마에 있다. 겹처마는 길쭉한 서까래의 끝부분 위에 짧은 덧서까래를 얹어 만든 이중 처마를 말한다. 덧서까래는 처마 끝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낸다. 처마선의 아름다움은 벽체로부터 서까래가 시원스럽게 빠져나오는 데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덧서까래를 올렸으니 그 선은 날듯이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덧서까래의 매력은 건물 네 귀 모퉁이의 추녀에서 절정을 이룬다. 건물 모퉁이 추녀에 올린 서까래를 귀서까래(덧서까래의 모퉁이 부분)라 하는데, 이들 귀서까래는 부챗살인 양 벽체 밖으로 짝 펼쳐지면서 처마 끝을 한껏 들어올린다. 그 모양이 부드러우면서 날렵하되 천박하지는 않다. 그 거침없음과 세련됨, 처마선의 백미(白眉)라 하기에 충분하다.

귀서까래를 추녀 중앙 쪽보다 훨씬 길게 빼내어 높이 들어 올린 것은, 멋도 멋이지만 사람들의 착시(錯視)를 막기 위한 절묘한 장치다.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보면 귀서까래 쪽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만약 기와지붕 처마의 실제 높이를 모두 같게 한다면, 귀서까래 쪽은 다른 부분과 실제 높이가 같은데도 시각적으로 밀로 쳐져 보여 산뜻한 맛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착시를 고려하여 모퉁이 추녀를 높게 들어 올린 것이다. 길게 빼낸 귀서까래는 이런 미적 효과만이 아니라, 들이치는 빗물을 막아 건물 모퉁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덧서까래를 받쳐 주는 긴 받침목에도 처마선의 비밀 하나가 숨어 있다. 먼저 지붕 중앙 부분의 ㉡반듯한 받침목을 보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받침목 가운데 부분은 지붕의 무게로 인해 자연스레 살짝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면 받침목의 모양이 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추녀 쪽 처마선이 날아갈 듯 들어 올려지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연적인 요소가 처마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퉁이 부분의 ㉢휘어진 받침목에서 휘어진 목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모퉁이 쪽 추녀선이 올라가게 한 섬세한 배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곡선미를 의식한 것으로, 고도의 안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 건축은 서까래 하나를 올리면서도 인공적 측면뿐 아니라 우연의 측면까지 끌어안았다. 이 처마선의 아름다움은 목조 기와 건축물에서만 아니라 석탑의 옥개석에서도 나타난다. 석탑 옥개석의 날렵한 곡선에서도 기와지붕 처마선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기와지붕 처마의 곡선미, 그것은 우리 전통 건축의 미감을 살려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덧서까래는 귀서까래의 대용물 역할을 한다.
- ② 귀서까래는 다른 서까래보다 길이가 길고 더 높다.
- ③ 처마선의 아름다움은 서까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겹처마는 서까래 위에 또 하나의 서까래를 얹은 것이다.
- ⑤ 처마선의 아름다움은 석탑의 옥개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의 미적 특성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를 소개한 후 그것을 절충하고 있다.
- ③ 문답을 통해 설명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장하고 있다.
- ④ 권위자의 학설을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개념을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로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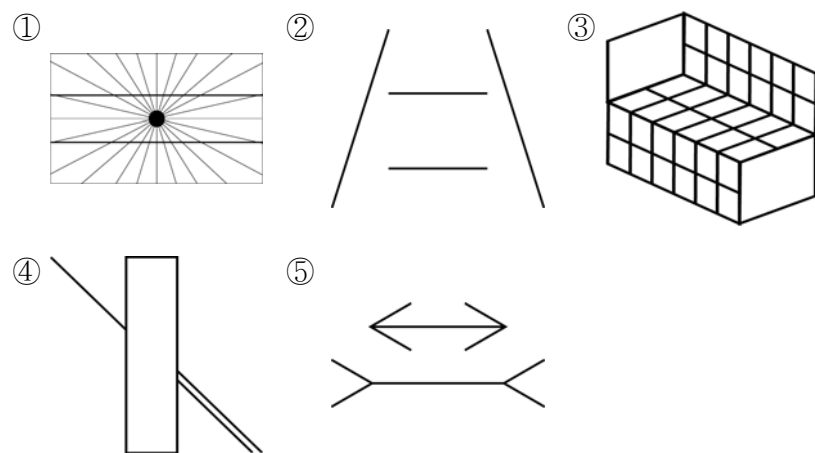
32. 위 글을 참조하여 판단할 때 <보기>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수업 시간에 배운 전통 건축 처마선의 아름다움을 직접 감상하기 위해 고궁을 찾았다. …………… 과연 고궁의 처마가 보여주는 곡선미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가볍게 날아갈 듯 솟아오르며 부드러운 자태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모양을 한마디로 평한다면 ()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① 소박하고 둔탁하다 ② 경쾌하고 유려하다
- ③ 투박하고 웅장하다 ④ 단아하고 둔중하다
- ⑤ 고고하고 육중하다

33. ㉠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34. ㉠과 ㉡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실용적인 장치이고, ㉡는 장식적인 장치이다.
- ② ㉠은 설계 과정에서 쓰였고, ㉡는 제작 과정에서 쓰였다.
- ③ ㉠보다는 ㉡가 처마의 무게를 지탱하기에 더 유용하다.
- ④ ㉠과 ㉡ 둘 다 처마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⑤ ㉠과 ㉡ 둘 다 처마의 곡선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치적 지배는 타인에 대한 지배이기 때문에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원래 인간은 감정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지배자는 상대가 자기의 명령이나 지도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만일 의도한 대로 상대를 이끌어 가는 데 실패하면 최후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 발동(發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지배하는 것은 가장 열등한 지배 방식이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기 쉽다. 그러기에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지배 방식을 사용하려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상징을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를 조작하는 상징 조작이다.

상징은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해 피운 연기처럼 어떤 것을 대신 나타내 주는 사물이나 기호이다. 상징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로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치 행동과 상징은 근원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서 상징은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國家), 권력 등을 국기, 국가(國歌), 제복 등의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흔한데, 사람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징 조작은 효과적인 지배 기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찰스 메리엄은 정치에서의 상징 조작을 미란다와 크레덴다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미란다라는 말은 원래 ‘감탄할 만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온 말로 놀랄 만큼 뛰어난 정치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회구(希求)하거나 어떤 질서에 ㉡ 귀속(歸屬)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이런 심리에 호소하는 상징을 ‘동일시의 상징’이라 한다. 동일시의 상징이란 국기를 바라볼 때나 국가(國歌)를 같이 부를 때 모두가 동일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자아내는 것처럼 인간의 정서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다. 각종 기념일, 공공 장소와 기념관, 제복, 기념식, 동상 등도 그 예이다. 권력의 미란다는 이러한 동일시의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 규합(糾合)시키려 한다.

반면 크레덴다는 신학 용어에서 온 말로 ‘신조(信條)’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대할 때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 수긍(首肯)한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람들의 이성을 움직이는 기호를 ‘합리화의 상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이지적인 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다. 권력의 크레덴다는 이러한 합리화의 상징을 이용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권력의 정통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곧 권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국민들

의 마음속에 심어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권력의 지배를 받아들여게 하는 은밀한 정치 기술의 하나가 크레덴다인 것이다. 여기에는 헌법 제정,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재적 권력이든 민주적 권력이든 지배자는 정치적 상징을 통해 피지배자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정치 기술, 즉 상징 조작을 통한 지배 방법을 흔히 사용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배자들은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고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 확보(確保)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상징 조작을 통한 지배 권력의 정당화는 권력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35. 위 글의 집필 동기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치적인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 하였다.
- ② 상징 조작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밝혀 그 우열을 드러내려 하였다.
- ③ 피지배자들의 심리를 조작하여 지배하는 지배자들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려 하였다.
- ④ 현재의 정치 기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 새로운 정치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하려 하였다.
- ⑤ 현대 정치학이 이론 학문적 성과를 제시하여 정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였다.

3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관해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위대를 경찰이 진압하는 장면.

- ①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지배자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지배자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차원 높은 지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지배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 ⑤ 지배자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내지 못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7. ‘미란다’와 ‘크레덴다’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미란다	크레덴다
① 유래	‘감탄할 만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에서 온 말	신학 용어에서 온 말로 ‘신조(信條)’를 의미함
② 성격	동일시의 상징	합리화의 상징
③ 방법	정서적인 면에 호소	이지적인 면에 호소
④ 특징	강제적인 복종 유도	자발적인 복종 유도
⑤ 공통점	인간의 심리 조작	

38. 위 글에서 설명한 ‘상징 조작’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자가용 운전자가 혼잣말로) “바벨 때면 신호등에 자주 걸린단 말야.”
- ② (친구간의 대화에서) “체력 단련을 위해 오늘부터 수영을 배울 생각이야.”
- ③ (엄마가 아이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저기 화장실 표지가 보이지? 얼른 다녀와.”
- ④ (주민들의 대화에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어디에서 불이 났나 보군.”
- ⑤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사에 와서 참배하니 감회가 남다르지?”

39.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공공 기관이 법적 권한을 행사함
- ② ㉡ : 어떤 개인이 특정 단체의 소속이 됨
- ③ ㉢ :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
- ④ ㉣ : 옳다고 인정함
- ⑤ ㉤ : 확실하게 가지고 있음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 줄거리】 황해도 웅진 고을에 부유하면서도 성미가 괴팍하고, 심술 또한 맹랑한 웅고집이란 인물이 살았다. 늙고 병든 모친을 제대로 봉양은 아니 하고, 불교를 업신여겨 중을 보면 심한 모욕을 준다. 이에 취암사의 도사는 웅고집을 벌하기 위해 학대사를 보낸다. 학대사는 허수아비에 부적을 붙여 가짜 웅고집을 만들었다. 허용가와 실용가는 서로 진짜라고 다투지만 집안사람들은 진위 판별을 못하고 마침내 관가에 송사한다. 사또는 심리 끝에 허용가를 진짜 웅가로 인정한다.

사또는 뜰아래 꿇어앉은 실용가를 불러 분부하되,

㉠ “네놈은 흉칙한 인간으로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코자 하였으니, 죄상인즉 마땅히 의율 정배(依律定配)할 것이로되, 가벼이 처벌하니 바빠 끌어내어 물리쳐라.”

대곤 삼십 도를 매우 치고, 죄목을 엄히 문초하되,

“네 이 놈! 차후에도 웅가라 하겠느냐?”

실용가는 꿈곰이 생각건대, 만일 다시 웅가라 우길진대 필시 곤장 밑에 죽겠기에,

“예, 웅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기를,

“장채 안동하여 저 놈을 월경시키라.”

하니, 군노사령 벌떼같이 일시에 달려들어 용가놈의 상투를 움켜잡고 휘휘 돌려 내쫓으니, 실용가는 할 수 없이 걸인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고향 산천 멀리하고 남북으로 빌어먹을 새, 가슴을 탕탕 치며 대성통곡하며 하는 말이,

“답답하다 내 신세야! 이 일이 꿈이나 생시냐? 어찌하면 좋을는고? 이른바 낙미지역*이로다.”

무지하던 고집이놈 어느덧 허물을 뉘우치고 애통하여 하는 소리가,

“나는 죽어 썩 놈이로되, 당상 학발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의 인연 맺어 일월로 다짐하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종사 하렸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도 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에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적에 섬마둥둥 내 사랑아! 이 일이 생시는 아니로다. 아마도 꿈이니, 꿈이거든 어서 바빠 깨어나라!”

(중략)

허용가와 실용가의 마누라가 즐거이 지낼 무렵, ㉡ 실용가는 할 수 없이 세간 처자 모조리 빼앗기고 팔자에 없는 곤장 맞고 쫓겨나니 세상에 살아본들 무엇하리?

“애고 애고 내 팔자야. 죽장망혜 단표자로 만첩청산 들어가니 산은 높아 천봉이요, 골은 깊어 만학이라. 인적은 고요하고 수목은 뻑뻑한데 때는 마침 봄철이라. 출림비조** 산새 들은 쌍거쌍래 날아들 새, 슬피 우는 두견새는 이내 설움 자 아내어 꽃떨기에 눈물 뿌려 점점이 맺어두고 불여귀를 삼으니 슬프다, 이런 공산 속에서는 아무리 철석같은 간장이라도 아니 울지는 못하리라.”

자살을 결심하고 슬피 울 새 한 곳을 쳐다보니 층암절벽 벼랑 위에 백발도사 높이 앉아 청려장을 옆에 끼고 반송 가지를 휘어잡고 노래 불러 하는 말이,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주신 벌이거늘,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가?”

실용가는 이 말을 다 들으며 어찌할 줄 모르는 듯,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 급히 하며 애원하되,

“이 몸의 죄 돌이켜 생각하면 천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밝으신 도덕 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사이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이 소원 풀고 나면 지하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줄로 아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온갖 정성 다 기울여 애걸하니, 도사가 소리 높여 꾸짖기를,

㉢ “천지간에 몸쓸 놈아! 이제도 팔십 당년 병든 모친 구박하여 내돌방에 두려는가? 불도를 업신여겨 못된 짓 하려는가? 너 같은 몸쓸 놈은 웅당 죽여 마땅하되, 정상이 가공하고 너의 처자 불쌍하기로 풀어 주겠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여라.”

도사는 ㉣ 부적 한 장을 써 주면서 일러두길,

“이 부적 간직하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슬며시 사라지니, 도사는 간데없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계는 이미 눈에 익은 풍취로다. 담장 안의 흥련화는 주인을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었느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매 오늘이 옹오며 어제는 잘못임을 깨닫고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문전 앞에서 하는 말이,

“가소롭다, 허옹가야! 이제도 옹가라고 장담을 할 것이냐?”
늙은 하인 내달으며,

㉔ “애고 애고 좌수님, 저 놈이 또 왔소이다. 천살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럴 즈음에, 방에 있던 옹가는 간 데 없고, 난데없는 짙한 못이 놓여 있을 따름이요, 허옹가와 수다한 자식들도 홀연히 허수아비 되므로, 온 집안이 그제서야 깨달은 듯 박장대소하였다.

좌수가 부인에게 하는 말이,

“마누라, 그 사이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이 무수히 낳았으니, 그 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을꼬? 한상에서 밥도 먹었는가?”

얼이 빠진 부인은 아무 말 못 하고서, 방안을 돌아가며 허옹가의 자식들 살펴보니, 이를 보아도 허수아비요, 저를 보아도 허수아비라, 아무리 다시 보아도 허수아비 무더기가 분명하였다. ㉕ 부인은 실옹가를 맞이하여 반갑기 그지없되 일변 지난 일을 생각하고 매우 부끄러워하였다.

도승의 술법에 탄복하여, 옹 좌수 그로부터 모친께 효성하며 불도를 공경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일 많이 하니, 모두들 그 어짊을 칭송하여 마지아니하였다.

- 작자 미상, 『옹고집전(壅固執傳)』 -

*낙미지역 : ‘뜻밖의 다급한 재앙’을 이룸.

**출림비조 : 숲으로 새들이 날아듦.

42 위 글의 [부적] 과 <보기>의 [전령]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생 원 :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 초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람이 비호(飛虎) 같은데,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생 원 : 오오, 그리 하여라. 됐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한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데, 전령 보자.

말뚝이 : (종이를 취발이에게 보인다.)

취발이 : (종이를 보더니 말뚝이에게 끌려 양반의 앞에 온다.)

- ① ‘전령’과 달리, ‘부적’은 주술적 기능을 지닌다.
- ② ‘전령’과 달리, ‘부적’은 요구자의 요청으로 제작되었다.
- ③ ‘부적’과 달리, ‘전령’은 원상 회복 효과를 발휘한다.
- ④ ‘부적’과 달리, ‘전령’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 ⑤ ‘부적’과 달리, ‘전령’은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되었다.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빠른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 ⑤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1. ㉑~㉕에서 인물들이 보이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인과응보(因果應報)에 따라 심판하고 있다.
- ② ㉒ : 자포자기(自暴自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 실옹가의 대오각성(大悟覺醒)을 추구하고 있다.
- ④ ㉔ : 실옹가에게 면중복배(面從腹背)하고 있다.
- ⑤ ㉕ : 반가움과 자괴지심(自愧之心)을 함께 느끼고 있다.

43.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봉건사회의 여성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을 다룬 작품이야. 무엇보다 정절이 요구되었던 것 같아.
- ②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야. 인간은 이러한 갈등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 ③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간의 이중성을 비판한 작품이야. 진실은 결국은 밝혀지고 마는 거야.
- ④ 고난을 통한 종교적 수행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야. 깨달음이 없는 존재는 결국 허수아비와 같을 뿐이야.
- ⑤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야.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거야.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은 쿼크(quark)들 사이에 작용하는 강한 핵력을 설명한 업적으로 그로스, 폴리처, 윌첵에게 수여되었고, 화학상은 세포 내에서 ‘유비퀴틴’이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설명한 로즈, 치카노베르, 헤르슈코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쿼크와 유비퀴틴이 각각 물리학과 화학의 연구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1백37억 년 전 우주의 빅뱅(big bang)에서 생긴 쿼크는 단순의 극치이다. 현재 우리 주위의 모든 물질을 쪼개 나가면 더 쪼갤 수 없는 쿼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1백억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그 존재마저 묻힌 채로 있었던 쿼크는 1963년에 겔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존재를 밝히고 나서야 ‘우주의 기본 입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김춘수의 명시 ‘꽃’이 떠오른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이 시와 연관 지어 볼 때, 겔만이 a (이)라면, 쿼크는 b (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겔만은 이 쿼크의 존재를 밝힌 업적으로 196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이 쿼크들은 핵과 관련된 강한 힘으로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한다. 자연 상태에서 쿼크들은 멀리 떨어지게 되므로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점점 약해진다. 그러나 쿼크들 사이에 핵과 관련된 강한 힘이 작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결합하여 수소, 탄소, 질소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원자를 이루는데, 이것들은 생명에 핵심적인 원소의 구성 입자이기도 하다.

이 수소, 탄소, 질소 등의 원자들이 결합하여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아미노산들은 결합하여 유비퀴틴과 같은 단백질을 만들어 세포 활동에 사용한다.

유비퀴틴은 분자량이 약 8,600인 단백질이다. 유비퀴틴에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약 8,600개 정도 들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양성자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 중성자에는 업쿼크 1개와 다운쿼크 2개가 들어 있다. 그렇다면 유비퀴틴에는 쿼크 약 2만 6천 개 정도가 들어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 재료인 벽돌을 쌓아 올려 매우 복잡한 구조의 건물을 만들어 낸 것과 같다.

이 유비퀴틴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 동안 대부분 화학자들은 세포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노벨상을 수상한 세 명의 화학자들은 역할을 마친 단백질들이 어떻게 분해되어 재활용되는가에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연구 끝에 단백질 분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비퀴틴을 발견한 것이다.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우주와 생명의 역사야말로 몽치는 역사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생명 탄생을 위한 우주의 여정은 강한 핵력을 이용한 쿼크의 몽치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출발한 우주는 태양계의 일부인 지구에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은 계속적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오늘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세계의 비밀을 밝혀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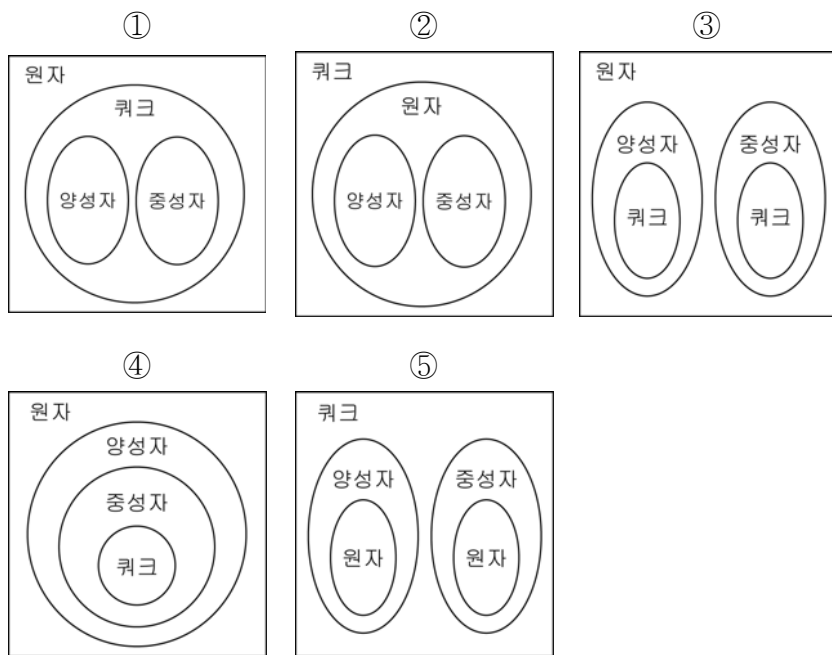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쿼크는 우주의 빅뱅을 통해 생겨났다.
- ② 쿼크의 존재가 최초로 밝혀진 것은 1963년이었다.
- ③ 쿼크와 유비퀴틴은 각각 물리학, 화학의 연구 경향을 보여준다.
- ④ 양성자와 중성자는 중력과 전자기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 ⑤ 아미노산의 형성에는 수소, 탄소, 질소 등의 원자가 필요하다.

45. ㉠와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나, 꽃 ② 그, 꽃 ③ 그, 이름
- ④ 나, 몸짓 ⑤ 꽃, 몸짓

46. [A]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자들 간의 구성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47. 위 글을 읽은 학생이 [B]와 <보기>의 내용을 연관 지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 번 만들어진 단백질은 효소 등의 역할을 끝낸 다음 분해되어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그런데 일부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인체에 쌓이게 되면 치매 등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① 치매 등의 질병은 유비퀴틴이 인체에 쌓이면서 발병하게 되는구나.
- ② 유비퀴틴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효소의 재료로 쓰이는구나.
- ③ 노벨 화학상은 질병의 원인 규명과 치료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수여되는구나.
- ④ 유비퀴틴은 세포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떻게 효소 역할을 하는지 밝히는 매개체가 되겠구나.
- ⑤ 유비퀴틴은 인체에 쌓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니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 출신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채플린은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달고 머리에는 다 떨어진 모자를 쓰고, 자기 몸에 ㉠ 맞지 않는 바지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무대에서 연기한다. 우리는 그의 콧수염, 모자, 바지, 신발, 지팡이 등을 보고 ‘이 사람이 채플린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콧수염, 모자, 지팡이 등은 모두가 채플린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그의 표면적 현상이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감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성적 인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이러한 감성적 인식에 그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물의 표면적 현상만을 담은 사진기와 달라서 감성적 인식과 더불어 고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능력 덕택으로 사물의 표면 현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깊은 근본 성질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

사진에 찍힌 채플린은 단지 콧수염을 기른 사람에 불과하며 그 모습 자체 말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해 주는 바가 없다. 만약 우리가 감성적 인식밖에 할 수 없다면 채플린의 수염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수염과 비슷해서 언뜻 보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의 인식을 살펴보면 채플린의 여러 가지 표면적 현상을 떠나서 그의 근본 성질을 알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채플린은 희극 배우이고 히틀러는 독재자로, 그 근본 성질이 전혀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 성질은 감성적 인식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 이처럼 표면적 차이점이 아닌 그 내적 연관성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감성적 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다른 인식 능력, 즉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인식은 ㉡ 감성적 인식과 ㉢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성적 인식은 인간의 감각 기관이 사물에 작용해서 이루어진 생생한 인식이며, 사물의 외적 측면인 현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단편적, 표면적이며, 여기에는 감각, 지각과 같은 인식 형태들이 포함된다. 이에 반해 이성적 인식은 인간의 이해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인식으로서, 사물의 본질과 내적 연관성을 인식한다. 여기에는 판단, 추리 같은 인식 형태들이 있다.

그런데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은 서로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감성적 인식은 채플린이 콧수염이 있고 히틀러도 콧수염이 있으므로 두 사람이 같다고 혼동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성적 인식은 채플린과 히틀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감성적 인식은 외모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로이드나 하디 같은 희극 배우들과 채플린은 다르다고 느끼는 데 반해, 이성적 인식은 그들의 내적 연관성을 파악하여 ‘희극 배우’라는 점에서 그들이 동일하다고 인식한다. 즉, 이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이 동일하다고 느낀 것을 동일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감성적 인식이 동일하지 않다고 느낀 것을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채플린의 표면적인 현상을 인식할 수 없다면 희극 배우로서의 채플린도 인식할 수 없듯이 만약 감성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성적 인식도 존재할 수 없다. 감성적 인식이 외계 사물에 작용해서 그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정

보를 제공하면 이에 기초해서 이성적 인식이 진행된다. 이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과 상호 작용하면서 감성적 인식의 대상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며 사물의 본질과 내적 연관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한다.

48. 위 글을 학교 신문에 소개하려고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식이란 무엇인가
- 감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사고
- ② 인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
- ③ 인식의 대상은 무엇인가
- 관념을 포함한 모든 사물
- ④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상호 작용
- ⑤ 인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 확대되는가
-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지속적 대립

49.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점]

— < 보 기 > —

ㄱ. 서로 다른 두 견해를 객관적으로 소개한다.
 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ㄷ. 대상의 특성을 대비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한다.
 ㄹ.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서술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50. ㉠ 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 ① 울 가을에 사위를 맞으신다면서요?
- ② 할머니 반지가 내 손가락에 딱 맞네.
- ③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잘 맞는 것 같아.
- ④ 내 육감이 맞았는지 우리 팀이 승리했어.
- ⑤ 국산 시계가 외제 시계보다 더 잘 맞는군.

51. ㉡, ㉢ 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 는 주관적으로, ㉢ 는 객관적으로 정보를 해석한다.
- ② ㉡ 는 대상의 표면적 현상에, ㉢ 는 대상의 본질에 주목한다.
- ③ ㉡ 는 모순을 갖고 있고, ㉢ 는 그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 ④ ㉡ 는 인식의 대상을 결정하고, ㉢ 는 인식의 방향을 결정한다.
- ⑤ ㉡ 는 이해력을 통해서, ㉢ 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52-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것이 어찌 없을까?”
 아내가 장문을 열고 무엇을 찾더니 입안말로 중얼거린다.
 “무엇이 없어?”
 나는 우두커니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장만 뒤적뒤적하다가 물어 보았다.
 “모본단 저고리가 하나 남았는데…….”
 “…….”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 하려는 것을 알아. 오늘 밤에 옆집 할멈을 시켜 잡히려 하는 것이다.
 이 2년 동안에 돈 한 푼 나는 데는 없고 그대로 주리면 시장할 줄 알아 기구(器具)와 의복을 전당국 창고(典當局倉庫)에 들이밀거나 고물상 한구석에 세워 두고 돈을 얻어 오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내가 하나 남은 모본단 저고리를 찾는 것도 아침거리를 장만하려 함이다.
 나는 입맛을 쩍쩍 다시고 폼뎀 책을 덮으며 후—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벌써 반이나 지났건마는 이슬을 실은 듯한 밤기운이 방구석으로부터 슬금슬금 기어나와 사람에게 안기고 비가 오는 까닭인지 밤은 아직 깊지 않건만 인적조차 끊어지고 온 천지가 빈 듯이 고요한데 투닥투닥 떨어지는 빗소리가 한없는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
 “빌어먹을 것 되는 대로 되어라.”
 나는 점점 견딜 수 없어 두 손으로 흠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중얼거리 보았다. 이 말이 더욱 ㉠한 생각을 일으킨다. 나는 또 한 번, 후— 한숨을 내쉬며 왼팔을 베고 책상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다.
 이 순간에 오늘 지낸 일이 불현듯 생각이 난다.
 (중략)
 내가 알다시피 내가 별로 천품은 없으나 어쨌든 무슨 저작가(著作家)로 몸을 세워 보았으면 하여 나날이 창작과 독서에 전심력을 바쳤다. 물론 아직 남에게 인정될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자연 일상생활이 말유(末由)하게 되었다. 이런 곤란에 그는 근 이 년 건디어 왔건마는 나의 하는 일은 오히려 아무 ㉡이(가) 없고 방 안에 놓였던 세간이 줄어 가고 장롱에 찻던 옷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이다.
 그 결과 그다지 견딜성 있던 저도 요사이 와서는 때때로 쓸데없는 탄식을 하게 되었다. 손잡이를 잡고 마루 끝에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기도 하며 바느질을 하다 말고 실심(失心)한 사람 모양으로 멍멍히 앉았기도 하였다. 창경(窓鏡)으로 비치는 어스름한 햇빛에 나는 흔히 그의 눈물 머금은 근심 있는 눈을 발견하 [A]였다.
 이럴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한 생각이 들며 일없이, “마누라!”
 하고 부르면 그는 몸을 흠뻑 하고 고개를 저리로 돌리어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씻으며, “네에?”
 하고 울음에 떨리는 가는 대답을 한다.
 나는 등에 찬물을 끼얹는 듯 몸이 으쓱해지며 처량한 생각이 싸늘하게 가슴에 흘렀었다. 그렇지 않아도 자비(自卑)하기 쉬운 마음이 더욱 심해지며, ‘내가 무자격한 탓이다.’
 하고 스스로 ㉢을(를) 하고 나니 더욱 견딜 수 없다. ‘그럴 만도 하다.’
 는 동정심이 없지 아니하되 그래도 그만 불쾌한 생각이 일어나며,

‘계집이란 할 수 없어.’
 혼자 이런 ㉣을(를) 중얼거리었다.
 환등(幻燈) 모양으로 하나씩 둘씩 이런 일이 가슴에 나타나니 무어라고 말할 용기조차 없어졌다. 나의 유일의 신앙자(信仰者)이고 위로자이던 저까지 인제는 나를 아니 믿게 되고 말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네가 육 년 동안 내 살을 깎고 저미었구나! 이 원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매 그의 불같은 사랑까지 엷어져 가는 것 같았다. 아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 것 같았다. 나는 감상적으로 허둥허둥하며,
 “넌들 마누라를 고생시키고 싶어 시켰겠소! 비단옷도 해주고 싶고 좋은 양산도 사주고 싶어요! 그러길래 원종일 쉬지 않고 공부를 하니 하우. 남 보기에는 편편히 노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본들 모른단 말이요.”
 나는 점점 강한 가면(假面)을 벗고 약한 진상(真相)을 드러내며 이와 같은 가소로운 ㉤까지 하였다.
 “원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비소(誹笑)하고 모욕하여도 상관 없이 없지만 마누라까지 나를 아니 믿어 주면 어찌한단 말이요.”
 내 말에 스스로 자극이 되어 마침내,
 “아아!”
 길이 탄식을 하고 그만 쓰러졌다. 이 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아마 하염없이 입술만 물어뜯고 있던 아내가 홀연,
 “여보!”
 울음소리를 떨면서 무너지는 듯이 내 얼굴에 쓰러진다.
 “용서…….”
 하고는 북받쳐 나오는 울음에 말이 막히고 불덩이 같은 두 뺨이 내 얼굴을 누르며 흑흑 느끼어 온다. 그의 두 눈으로부터 샘솟듯 하는 눈물이 제 뺨과 내 뺨 사이를 따뜻하게 젖어 퍼진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뒤숭숭하던 생각이 다 이 뜨거운 눈물에 봄눈 슬듯 스러지고 말았다.
 한참 있다가 우리는 눈물을 씻었다. 내 속이 얼마큼 시원한 듯하였다.
 “용서하여 주श्य요!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는 눈물에 부어오른 눈꺼풀을 아픈 듯이 꿈적거린다.
 “암만 구차하기로서니 싫증이야 날까요! 나는 한번 먹은 마음이 있는데…….”
 가만가만히 변명을 하는 아내의 눈물 흔적이 어롱어롱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겨우 심신이 가뜩하였다.
 - 현진건, 『빈처(貧妻)』 -

52. 위 글에 나타난 소재나 배경의 역할에 대해 추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책상·책: ‘저작가’ 지망생인 남편의 창작 및 독서와 관련이 있는 소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 ② 모본단 저고리: 생계를 위해서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구를 접어야 하는 아내의 사정을 드러내고 있어.
- ③ 전당국 창고·고물상: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④ 밤·빗소리: ‘나’의 심리와 상응하는 배경으로 사용되었어.
- ⑤ 비단옷·양산: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의 수단인 동시에 남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관련된 상징물로 사용되었어.

53. 위 글의 서술 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작중 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② 작품 밖에 위치한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의 행위를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③ 작중 인물인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은 배제한 채, 등장인물의 행위와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 ⑤ 특별한 사건의 전개 과정이 없이 오직 서술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식과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54. 위 글을 읽고 난 학생들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름다워! 1학년 김○○
①	상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결코 가난하지 않은 작가의 아내 1학년 홍○○
②	비록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보석 같은 마음과 남편의 사랑이 있는 한 그녀는 가난하지 않아...
	소외된 가정에 대한 따뜻한 시선 1학년 나○○
③	떠다니는 부평초라도 물 고이면 피는 법!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눈물 속에서도 피어날 꽃 1학년 주○○
④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기대하는 날은 꽃처럼 피어날 것이니...
	어느 작가의 초상 1학년 안○○
⑤	궁핍한 상황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가는 가난한 작가의 초상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

55. '나'의 심리를 고려하여, ㉠~㉤에 들어갈 말을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슬픈 생각을 자아낸다'와 '한숨을 내쉬며'로 보아, '차량(淒涼)'이 어울린다.
- ② ㉡ : 근 이 년 동안 견디어 왔지만 거기에 비해 좋은 결과가 없는 상황이므로, '보람'이 어울린다.
- ③ ㉢ : '내가 무자격한 탓이다'라며 스스로 낮추어 말하고 있으므로, '멸시(蔑視)'가 어울린다.
- ④ ㉣ : 상대에게 불쾌한 생각을 하며 못마땅해 하므로, '불평(不平)'이 어울린다.
- ⑤ ㉤ : 겉으로 강한 척하다가도 약하게나마 서서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변호(辯護)'가 어울린다.

56. [A]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표현해 보았을 때,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 보 기 > —

아내는 요사이 와서 탄식을 자주 한다. 마루 끝에 서서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멍멍히 앉았기도 하였다. 오늘은 바느질이다 뭐다 고단한 일을 마친 아내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지쳐 그만 쓰러져 자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그의 일기장이 퍼진 채 놓여 있었다.

○월 ○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늘도 애인 곁에서 일을 했다. 그이는 늘 책상에 앉아서 무슨 글을 쓴다고 골똘히 생각한다. 그이가 좋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를 바라보다가도 창밖 먼 산으로 자주 눈길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 어느새 어스름한 햇빛에 까닭 모를 눈물이 고이곤 한다. '우리 형편은 언제나 필까?' 이런 일이 점점 더해만 간다.

처음엔 웬 애인인가 싶어 의아했다. 그러나 그가 애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 낮에 보았던, 그의 눈물 머금고 근심 있어 보이던 눈이 바로..... 그리곤 '마누라' 하고 속으로 부르며 그의 자는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 ① '나'에 대한 '아내'의 긍정적 기대와 평가가 강조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② '아내'의 생각이 부각됨으로써 '나'와 '아내'의 갈등이 보다 더 증폭되어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
- ③ 서술의 속도가 한결 빨라짐으로써 사건 전개 과정에서 독자들은 이전보다 흥미를 더 느끼게 된다.
- ④ 가사 노동에 대한 '나'의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이어질 사건 전개의 순탄한 방향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다.
- ⑤ '아내'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므로,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물론 독자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영문 자판은 일명 '쿼티(QWERTY)' 자판이라고 불린다. 쿼티 자판은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타자기 시대부터 표준 자판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 자판이 타자기 시대를 지나 컴퓨터 시대까지 독보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1930년대 쿼티 자판과 드보락(Dvorak) 자판의 경쟁은 이 질문에 대해 재미있는 대답을 들려준다.

최초의 실용적 타자기는 크리스토퍼 라삼 솔즈가 발명하고 레밍턴사가 생산한 '솔즈와 글리든 타자기'였다. 솔즈가 처음에 이 타자기를 개발해 특허를 냈을 때 타자기의 철자막대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두 줄로 배열되었다. 그런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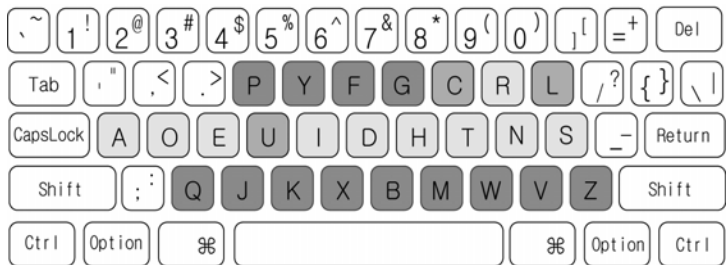
자기 작동 실험에서 자판을 조금만 빨리 쳐도 철자 막대들이 서로 뒤엉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솔즈는 T나 H처럼 함께 자주 쓰이는 철자들을 서로 띄어 놓으면 뒤엉킴이 덜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런 철자쌍을 가능한 서로 떨어지도록 배치한 결과, 총 4열로 된 자판을 완성하였다. 이 자판은 그 뒤 약간의 변형을 거쳐 레밍턴 타자기가 대량으로 생산되던 1880년대에는 거의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 퀴티(QWERTY) 자판

솔즈의 해결책으로 철자 막대의 엉킴은 확실히 줄었지만 엉킴을 막기 위해 자판을 배열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한 손가락들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철자들을 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인체공학적 결점은 타자 속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레밍턴 타자기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솔즈의 자판은 널리 퍼져 나갔고, 1895년 이후로는 보편적인 표준 자판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레밍턴 타자기가 시장을 석권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은 솔즈 자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드보락 자판이었다. 드보락 자판은 중앙에 5개 모음(A, O, E, U, I)과 가장 많이 쓰이는 자음(D, H, T, N, S)을 배치했다.



㉡ 드보락(Dvorak) 자판

이는 가능한 한 양손의 움직임 줄이고 손가락만을 움직여 자주 쓰는 철자들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약한 손가락이 놓이는 곳에는 잘 쓰지 않는 철자를 배치했다. 이로써 드보락 자판에서는 양손을 고루 쓸 수 있어 타자를 치는 리듬이 고르게 유지됐다. 또 이는 손가락만을 움직이면서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 400개 정도는 충분히 칠 수 있어 타이핑 작업의 70%를 해결할 수 있었다. 퀴티 자판으로는 100개 정도밖에 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드보락 자판은 합리적이고 우수한 공학 기술임에 틀림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락 자판은 먼저 보급된 퀴티 자판에 밀려 폭넓은 상용화에는 실패했다.

드보락 자판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타자수, 작가, 일반 이용자들이 드보락 자판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드보락 자판에 대해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수고를 감수할 만큼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경영자 입장에서조차 기존의 자판을 드보락 자판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새 자판을 다루기 위

해 타자수들을 새로 훈련시키는 일이 번거로웠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추가로 비용이 드는 만큼 이를 ㉠ 하고도 남을 만한 이점이 없다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드보락 자판은 기술적인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57.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장 효율적인 기술만이 합리적인 소비자에 의해 선택되는 거야.
- ②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술은 그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
- ③ 어떤 기술을 새로 개발할 때는 이용자들의 습관까지 고려해야 해.
- ④ 특정 기술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의 기술보다 뛰어나야 해.
- ⑤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을 접할 때 대개의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돼.

5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QWERTY'라는 이름은 ㉠의 철자 배열에서 따온 것이었군.
- ② ㉠은 약한 손가락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설계되었군.
- ③ ㉡에서는 'student', 'head' 등은 손가락만 좌우로 움직여도 칠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자주 쓰는 철자들을 한 줄에 모아 양손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군.
- ⑤ ㉡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쓰지 않는 문장 부호나 숫자들을 자판 중앙에서 먼 쪽에 배치하였군.

59. ㉠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1점]

- ① 액정 화면에 호출자의 전화번호가 찍히던 '삐삐'는 휴대 전화가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② 사탕만을 즐겨 먹던 어린아이가 우연히 초콜릿 맛을 본 다음부터는 사탕을 찾지 않고 초콜릿만 먹게 되었다.
- ③ 주판은 셈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으나 계산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
- ④ 비디오 녹화 재생 방식인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이 서로 경쟁하다가 시장 장악이 빨랐던 VHS 방식에 밀려 베타 방식은 자취를 감추었다.
- ⑤ 이태리 타일은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데 사용되었으나 피부를 세계 문지르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발표가 난 이후부터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60. ㉡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1점]

- ① 강화(強化) ② 보완(補完) ③ 상쇄(相殺)
- ④ 초과(超過) ⑤ 충만(充滿)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